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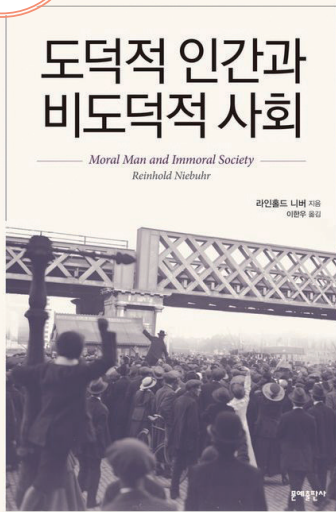
쌤과 함께!
교과 연계 적합서

윤리
③

〈생활과 윤리〉 사회 정의와 윤리

취재 김한나 ybbnni@naeil.com

ONE
PICK!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지은이 라인홀드 니버
펴낸곳 문예출판사

※★의 개수는 난도를 의미. 적을수록 읽기 쉬운 책.

“미국에서 흑인들의 유화적인 태도는 백인들의 억압을 누그러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이탈리아 사회주의자들의 평화주의 원칙 채택은 파시스트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평화·포용·용서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가치가 이렇듯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책은 인간은 개인으로서 도덕적이고 양심적일 수 있지만 집단이나 국가에 속하게 되면 이기적으로 변모한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윤리가 구분돼야 함을 강조하죠.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 사회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보길 바라요. 우리는 선량한 개인인 동시에 이기적인 집단의 일원이니까요.”_ 자문 교사단

개념 Check!

윤리 교과 자문 교사단

박석환 교사(서울 휘경여자고등학교)
이훈 교사(경기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오청락 교사(서울 영동일고등학교)
최정윤 교사(서울외국어고등학교)

- ✓ 도덕이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바람직한 행동 기준을 말함
- ✓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가 비도덕적으로 변모하게 되는 이유 고찰해보기
- ✓ 관련 전공: 심리학과 윤리학과 철학과 사회교육학과 사회학과 인류학과 정치학과 등

이기적인 집단행동 제어할 방법은?

ONE PICK!
함께 읽기

도덕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일지라도 그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장애인 복지 시설의 필요성을 긍정한다. 그러나 그 시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들어선다고 하는 순간 입장은 달라진다. 그들과 어울리기 싫다거나 집값이 떨어질지 모른다가나 하는 부도덕한 심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개개인이 모이면 이기적 목소리는 더 힘을 얻고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게 된다.

이 책은 한 국가나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도덕을 감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임을 설명한다. 특히 사회를 주도하는 특권층을 가리켜 '자신들의 특권을 평등과 정의로 포장하고 자신들이 보편적 이익에 봉사한다는 교묘한 증거와 논증을 창안해내려고 노력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사회 집단의 악(惡)을 견제하려면 개개인의 양심이나 윤리의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한 국가나 사회 집단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강제력이 부득불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폭력이나 강제력이 반드시 정의나 도덕적 선(善)에 기초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폭력과 강제가 동원돼야 하지 않을까?

책은 시원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상적이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이타적 개인'이 어떻게 '이기적 사회'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통찰과 문제의식은 인류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안긴다. '현대의 고전'이라는 칭송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명저다.

한걸음 더

- ✓ 국내외 특정 집단의 비도덕적 행위를 조사하고 그러한 집단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친구들과 토론했어보기
- ✓ 개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집단 속 내가 됐을 때 행동에 옮긴 경험 정리해보기
- ✓ 내가 국가의 리더라면 집단의 이기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발표해보기

자문 교사단의 '추천 도서'

제목 / 난도	지은이 / 출판사	추천 평
〈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귀족주의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 중 어느 쪽이 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다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주의에 대해 샌델은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지,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지, 불평등의 해답은 교육인지 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껏 우리가 공정의 상징으로 믿어온 것들의 이면을 책을 통해 함께 검토해보자.
〈니코마코스 윤리학〉 ★★	아리스토텔레스 현대지성	인생의 중요한 주제인 행복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다룬 고전이다. 특히 5권에서는 법을 지키는 것과 공정한 것,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 등 여러 정의에 대해 위대한 철학자의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을 음미해볼 수 있다.

연계 전공 국어교육과



임채민
국립공주대 국어교육과 1학년
(경기 봉담교)

“꾸준한 독서로 다진 독해력·사고력 남다른 지적 호기심 키웠죠”

Q. 전공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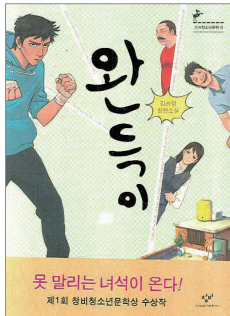
중학교 때부터 국어 성적이 특출나게 좋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국어 문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게 됐는데 ‘말의 규칙’이란 명칭에 걸맞지 않게 예외적이거나 모순된 사례가 상당하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어서, 그런 경우를 발견할 때마다 혼자 인터넷, 사전, 논문 등 자료를 찾아가며 탐구했어요.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희열을 느꼈고 더 깊이 배워보고 싶었죠. 또 학교에서 꾸준히 친구에게 국어 멘토링을 해줬어요. 처음엔 방법을 몰라 어려운 문제만 잔뜩 골라 지도했어요. 한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유를 고민하다 친구의 수준에 맞게 방향을 틀고 나니, 비로소 성적이 오르더군요. 이러한 경험이 맞물려 국어 교사를 꿈꾸게 됐어요.

국어교육과 진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언어와 매체>만큼은 꼭 열심히 공부하고 오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언어와 매체>에서 배운 문법 지식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Q. 고교에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했나요?

어릴 때 거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엄마가 사서줬거든요. (웃음) 중·고등학교 시기엔 인타깝게도 책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들인 독서 습관 덕분에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나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시험이 끝나 틈이 날 때 문학 작품을 읽곤 했죠. 책이 주는 위로와 안정감이 좋았거든요.

입시에 쫓겨 비록 많은 책을 읽진 못했지만 어린 시절 경험한 다량의 독서는 문해력과 사고력의 밑거름이 돼주었어요. 또한 앞서 밝혔듯 국어 문법과 관련해 의문점이 생길 때마다 논문을 탐독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수행평가나 탐구 보고서 작성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어요.



〈완득이〉
지은이 김려령
퍼낸곳 창비

추천 도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재미와 감동을 모두 선사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됐고요. 난쟁이 아버지와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를 둔 17세 소년 완득이가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유쾌한 문체와 함께 장애인, 이주민, 다문화가정, 빈곤가정 등 우리 사회의 약자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돌아보고,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고민해볼 수 있어서 추천해요. 특히 전 완득이 곁을 지키는 선생님 ‘똥주’가 인상적이었어요. 통명스럽지만 완득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교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해보게 해 ‘교육 입문서’로도 손색없는 책입니다.



〈언어 능력을 기르는 국어 수업〉
지은이 고용우
퍼낸곳 휴머니스트

현직 교사인 지은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국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어떤 교육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책입니다. ‘교육론’을 다룬 서적은 어렵고 딱딱하기 일쑤인데 이 책은 친절

하고 담백하게 설명하는 데다 재미있기까지 해요. 시와 소설 등 각종 텍스트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이끄는 방법, 신문 기사를 비롯해 각종 매체를 활용해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적 안목을 키우게 하는 방법, 고전을 지도할 때 고전하지 않는 방법 등 국어 교사라면 알아야 할 값진 정보를 담고 있어요. 국어 교사를 꿈꾸는 모든 학생들에게 권합니다. @